

# 정유업계 어제와 오늘



구 익 모

〈 석유협회 기획조사팀 상무 〉

지난 9월 29일로 석유협회는 창립20주년을 맞이하였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수 있는 세월이 흘렀다. 요즘은 진짜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20년은 정유산업에 있어서도 고도성장과 동시에 격변의 시기였다. 특히 근년에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정유사간의 인수합병은 상상도 못했다.

석유협회는 석유에너지의 물량확보가 시급하던 2차석유위기의 와중에 창립되었다. 당시에는 원유가격도 폭등하고 물량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가격은 제쳐두고라도 소요원유의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였다. 국무총리까지 석유자원확보에 동원, 중동산유국을 방문하였다. 개발도상소비국의 장관들이 중동산유국의 석유장관을 만나러 가서 문전박대당하던 시절이었다.

다행히 당시에는 국내석유수요도 지금처럼 많지 않고 또 정유5사중 규모가 큰 4사가 외국메이저나 산유국 국영석유회사와 합작기업이었던 덕분에 소요물량은 그런

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유산업의 위상과 인식도 현재보다는 훨씬 좋은 편이었다. 물론 그때는 주무정부부처로 협회창립 3년전에 신설된 동력자원부가 국내석유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발벗고 나설 때였다.

2차석유위기로 촉발된 배럴당 30달러전후의 고유가는 '79년부터 '85년까지 무려 7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는 침체를 겪게되고, 세계석유수요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석유수요도 '80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성급하게 정유산업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새로 설립된 협회에 기대를 걸고 입사했던 직원들은 정유산업의 사양화론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자, 세계주요소비국들은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대체에너지개발, 석유개발의 확대, 석유비축의 확충 등 대응노력의 결과로 석유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둔화되면서 국제유가는 '86년 7년만에 10달러대로 폭락하였다.

80년대 후반 저유가시대가 계속되자 일단의 석유전문가들은 고유가시대의 대응노력이 이완되고, 아태평양지역의 개도국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머지않아 다시 국제석유수급이 불안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현재의 고유가상황을 보면, 그 전망은 예상보다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적중한 셈이다.

그러나 걸프전기간을 제외하고 국제유가의 약세가 90년대 후반까지 예상외로 장기간 지속되자, 이번에는 국내외에서 고유가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석유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석유위기신화의 종식'이라는 책이 '97년에 출판되기도 하였다.

어쨌든 80년대 중반이후 국제원유가의 약세와 우리경제의 고도성장덕분에 석유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힘입어 국내정유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국내정유5사의 정제능력은 254만b/d(OGJ통계)로 세계 5위수준이 되었다.

국내정유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석유협회도 그동안 크게 성장하였고 위상도 높아져 협회인들도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정유업계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의 성격상 때로는 매맞이역활이나 동내북역활도 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시대에는 공통이해사항도 많고 현안문제에 대한 업계의 컨센서스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져 협회도 활동의 영역이 넓고 활동도 활발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유산업을 둘러싼 주변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협회의 대외건의활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가 하나 둘씩 폐지되고, 특히 IMF관리체제시 석유시장이 개방화되면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석유수입업자가 새로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석유제품은 품질의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쟁은 곧 가격경쟁으로 연결된다.

새로운 시장여건하에서 정유사들은 기존시장의 수성과 함께 생존과 시장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각론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반면, 공통의 이해부문이 자연히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대외활동에 관한한, 협회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요즘들어 더욱 안타까운 일은 정유업계가 문자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IMF이후 정부는 서둘러 수입자유화등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추진하면서, 사전준비나 후속조치로서 일부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맞게 손질하지 못해, 국내정유업계는 경쟁상 여러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원료와 완제품의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나, 원유와 석유제품만은 관세가 동일 수준이다. 대체연료간이나 같은 수송연료간 세금이나 부과금도 석유제품에만 높게 부과되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석유소비자들도 억울하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마티즈와 아토스같은 소형휘발유 승용차운전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카렌스나 레조등과 같은 중대형이상의 RV차(미니밴)소유자보다 비싼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요즘은 고유가시대에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책과도 모순되는 세금체계이다.

이와 관련 또 한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카렌스와 레조등은 구조적으로나 크기로 볼 때 승용차로 분류되는 5인승이지 7인승 승합차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값싼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셈이다.

정유업계는 돌팔매질 당하고 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도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체제의 개편도 이해집단들이나 관련산업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초 의도한 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개선될지 심히 염려스럽다.

1차세계대전시 프랑스의 크레망소 수상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 이라면서 석유지원을 긴급 요청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석유지원으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1차세계대전은 석유쟁탈전이 하나의 원인이었으며 동시에 석유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2차세계대전에서도 독일은 석유가 부족하여 성능이 우수한 탱크나 전투기가 고철로 전락하는 바람에 패전국이 되었다. 일본도 2차대전시 석유가 바닥이 나자 우리나라의 소나무에서 송진마저 채취해 갔다.

이처럼 전략물자이자 산업의 혈액인 석유의 중요성을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석유산업을 국가의 주요기간산업의 하나로 적극 보호육성해 오고 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아직도 석유의 안정공급수단으로서 정유산업의 보호역할을 하고 있는 소비지정제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석유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범세계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수요를 억제당하는 상품은 석유뿐일 것이다. 화석연료인 석유수요를 억제하여 CO<sub>2</sub>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고유가 정책등 에너지절약추진과 함께 대체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기준은 급격하게 선진국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어, 국내정유업계는 막대한 투자비의 조달과 경쟁력약화라는 2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사정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유업계는 언론계, 정부, 국민들로부터 몰매 맞고 있다. 특정 언론은 마녀사냥식으로 정유산업의 약점만 캐려고 들고, 공정상이나 유통 및 제품의 특수성, 국제적 관행, 당면과제등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석유대소비국이면서 우리나라처럼 정유산업을 흥대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동력자원부가 신설된지 불과 13

년에 타부처와 통합되고, 산자부의 석유국마저 지난해에 과단위로 축소된 것이 이를 잘 입증해 준다.

석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총에너지수요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종에너지원이며, 국내소요량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석유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주종에너지로서의 위치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 때에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석유의 안정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의 하나인 정유산업을 너무 심하게 쥐잡듯이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내정유산업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 외국의 합작파트너들을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홀대와 매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과 기업의 부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건실한 기간산업이자 공익성이 높은 전략산업인 정유산업이 부실화된다면, 그 파급영향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클 것이다.

과거 80년대와 90년대에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룰 때 정유산업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석유에너지 공급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도 과거의 큰 공헌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면서, 일부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이 참작되지도 않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유업계의 현안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유산업은 태동때부터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해외석유메이저와 합작기업으로 출발하였다. 그래서 정유사들은 처음부터 외국의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었고, 또 국내산업중에서는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석유위기 이후 당시 SK와 인천정유의 해외합작선은 국내정유산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국내에서 철수하였다. 돌팔매를 맞아야 한다면, 맨마지막으로 맞아야 할 산업중의 하나가 정유산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